



## 국민 의료 기반 확충에 주력할 터

金正秀 보사부장관, 신년사 발표

金正秀 보건사회부장관이 '91년도 신년사를 통해 올해의 보사 행정 계획을 발표했다.

김장관은, 『지난 한해 동안 보건사회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기반 확대, 소외 계층의 생계 자립 지원 등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왔다.』고 말하면서, 『미래의 우리 사회는 지속적 경제 성장으로 인한 국민 건강과 복지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그 수요 변화의 파악과 중요성 인

식을 통하여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보다 다양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장관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대 배치, 전 국민 의료보장 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 국민 연금 제도의 적용 대상 범위의 단계적 확대, 응급 의료 체계의 구축, 효율적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의료 기반 확충 등에 주력해 줄 것을 보건 및 사회복지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 체조교실”

건협 대전·충남지부, 매일 오전 10시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에서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 체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30분간 실시되는 이 체조 교실은 대전·충남지부 부속의 원외 강군옥 원장 (가정의학전문의)이 지도를 맡고 있다.

『발과 다리를 짧게 하는 방법』 등 60여종의 체조를 가르치고 있는 이 교실은, 대전·충남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대전)523-275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여성암 전문검진센터 생긴다

건협 대전·충남지부서 현재 준비중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에서는 “여성암 전문 검진 센터”를 오는 2월경 부터 개설.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현재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날로 증가하는 여성암의 조기 발견으로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 중인 이 여성암 전문 검진 센터는 앞으로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을 비롯하여 위암, 간암 등 암에 대한 전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